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57, No. 2

OPEN ACCESS

#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유형화와 작동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ypology and Operating Mechanisms of Urban Regeneration Libraries

노 영 희(Younghee Noh)*

〈 목 차 〉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유형화
Ⅴ.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작동 메커니즘
Ⅵ. 논 의
Ⅶ. 결론 및 제언

**요 약 :** 본 연구는 도시재생형 도서관을 지역 쇠퇴와 사회적 단절을 회복하는 사회적 인프라이자 도시재생의 실질적 앵커로 규정하고, 그 유형과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및 도시재생과 연계된 국내외 도서관 사례를 대상으로 입지 특성, 자산 활용 방식, 재생 목표, 공간 구성,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거버넌스, 지역재생 기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중심지 공공공간·도시브랜드형, 사회적 포용·생활권 회복형, 유휴공간 전환·근린재생형, 산업유산·대형 재생지구 앵커형, 상업·민관협력 복합이용형, 혼합·복합형으로 유형화되었다. 또한 접근권 회복, 비상업적 체류, 관계망 형성, 장소기억 재구성, 지역경제 및 창의활동 촉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재생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서관을 도시재생의 부속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공공성, 접근성, 관계망, 장소성, 지속가능성을 재조직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로 이해해야 함을 제시한다.

**주제어 :** 도시재생형 도서관, 공공도서관, 도시재생, 사회적 인프라, 도서관 유형화, 지역재생, 공공공간, 협력적 거버넌스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the typology and operating mechanisms of urban regeneration libraries by defining them not merely as cultural facilities or information service institutions, but as social infrastructure and practical anchors for restoring declining and fragmented local communities. Based on a qualitative cas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braries related to regional and urban regeneration, the study analyzed location characteristics, modes of asset reuse, regeneration goals, spatial composition, services and programs, governance structures, and contributions to local revitalization. The analysis identified six major types of urban regeneration libraries: city-center public space and city-branding type, social inclusion and neighborhood recovery type, idle-space conversion and neighborhood regeneration type, industrial heritage and large-scale regeneration anchor type, commercial and public-private mixed-use type, and hybrid-complex type. The findings show that these libraries generate regeneration effects through six operating mechanisms: restoring access to information, culture, and learning; enabling non-commercial stays; forming social networks; reconstructing place memory; promoting local economic and creative activities; and establishing collaborative governance. This study argues that libraries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uxiliary facilities with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ut as core public infrastructure that reorganizes local publicness, accessibility, social relationships, place identity, and sustainability.

**KEYWORDS :** Urban Regeneration Libraries, Public Libraries, Urban Regeneration, Social Infrastructure, Library Typology, Community Revitalization, Public Space, Collaborative Governance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 논문접수: 2026년 5월 14일 • 최초심사: 2026년 5월 30일 • 게재확정: 2026년 6월 15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7(2), 207-234, 2026. http://dx.doi.org/10.16981/kliss.57.2.202606.207

※ Copyright © 2026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Ⅰ. 서 론

오늘날 도시재생은 노후 건축물의 정비나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생활권 회복, 사회적 포용, 지역 정체성 재구성,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을 포함하는 통합적 과정으로 확장되고 있다. 도시 쇠퇴는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전환, 지역 불균형, 사회적 고립, 정보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시설 공급이나 공간 개선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재생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Rittel & Webber, 1973; Roberts & Sykes, 2000). 따라서 도시재생은 물리적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주민의 일상적 삶이 다시 작동할 수 있는 공공적 조건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도서관은 도시재생의 주요 공공 인프라로 주목될 수 있다. 도서관은 지식정보 제공기관으로서의 전통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누구나 접근하고 머물 수 있는 비상업적 공공공간이며, 교육・문화・정보 접근권을 생활권 안에서 보장하는 기반시설이다. IFLA와 UNESCO(2022)는 공공도서관을 교육, 문화, 포용, 정보 접근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Klinenberg (2018)는 공공도서관을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사회적 인프라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도서관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접근성, 체류성, 관계망, 장소성을 매개하는 공공적 장치로 기능할 가능성을 지닌다.

특히 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반복적 이용과 체류를 통해 사회적 접촉을 형성하고, 지역의 장소기억과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다양한 사람들이 부담 없이 만나는 저강도 만남의 장소로 작동한다는 논의는 도서관이 사회적 포용과 관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Aabø et al., 2010, 16-26; Audunson, 2005, 429-441). 또한 산업유산이나 유휴공간을 도서관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기존 장소의 기억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문화・학습 기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지역 정체성 회복과도 연결된다(Hayden, 1995). 따라서 도서관은 도시재생의 결과로 설치되는 부속시설이 아니라, 도시재생의 효과를 주민의 일상 속에서 지속시키는 실질적 매개체로 이해될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공공도서관과 도시재생의 관계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경제・교육적 가치에 대한 연구(Noh et al., 2018),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계획 특성 연구(문은미, 2017), 도시재생 참여 주체로서 도서관의 역할 연구(노영희, 노지윤, 2020), 유휴자원 재활용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앵커 기능 연구(박성우, 2020)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는 도서관이 지역사회 가치 창출, 문화적 도시재생, 유휴공간 활용, 사회적 앵커 기능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존 논의는 대체로 도서관의 지역사회 기여, 문화적 재생 기능, 도시재생 참여 역할, 유휴공간 활용 등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도서관이 도시재생에 개입하는 유형을 종합적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이 어떠한 작동 메커니즘을 통해 재생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및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국내외 도서관 사례를 분석하여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별 작동 메커니즘과 전략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도시재생형 도서관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둘째, 사례 비교를 통해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주요 유형을 도출하며, 셋째, 각 유형이 접근권 회복, 비상업적 체류, 관계망 형성, 장소기억 재해석, 지역경제 및 창의활동 촉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재생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도서관을 도시재생의 부속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삶을 다시 조직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성을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이해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헌정보학, 도시재생론, 공공공간론, 지역문화정책을 연결하는 학제적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기획과 운영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

도시재생은 노후화된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사회적 관계, 생활권 접근성, 지역경제, 장소 정체성, 공공서비스 체계를 통합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Roberts와 Sykes(2000)는 도시재생을 도시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으로 보았으며, 이는 도시재생이 단순 개발사업이 아니라 사회・경제・문화・환경적 조건을 함께 조정하는 전략임을 의미한다. 또한 Rittel과 Webber(1973)가 제시한 '복합 난제'의 관점에서 볼 때, 도시 쇠퇴는 단일 원인이나 단일 처방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이다. 따라서 현대 도시재생은 건축물 개선이나 공간 조성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서관은 도시재생의 부속시설이 아니라, 재생의 효과를 생활권 안에서 지속시키는 공공 인프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은미(2017)는 문화적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문화적 장소성을 강화하고, 복합적 공공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영희와 노지윤(2020)은 도서관을 도시재생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로 파악하면서, 도서관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주민참여, 지역자원 연계의 매개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는 도시재생의 핵심이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것'에서 '지역의 삶이 다시 작동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2.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도서관

사회적 인프라란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신뢰를 형성하며, 공동체적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물리적・제도적 기반을 의미한다. Klinenberg(2018)는 공공도서관을 대표적인 사회적 인프라로 제시하며, 도서관이 불평등, 고립, 지역사회 단절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Mattern(2014) 또한 도서관을 단지 지식 저장소가 아니라 도시의 사회적・기술적・지적 기반이 결합된 인프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도서관을 장서와 열람 중심 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일상적 회복력과 시민적 관계를 지탱하는 도시 기반시설로 이해하게 한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무료성, 개방성, 비상업적 체류성, 보편적 접근성을 통해 도시 내 포용성을 실현한다. IFLA-UNESCO 공공도서관 선언은 공공도서관을 교육, 문화, 포용, 정보 접근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의 평등한 정보 접근과 공동체 참여를 강조한다(IFLA & UNESCO, 2022). Noh et al.(2018)는 도서관의 가치에 대한 사서와 이용자의 인식을 비교하면서, 공공도서관이 정보・교육・문화적 가치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경제적 가치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생활권 안에서 정보・문화・학습 접근성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가치를 확장하는 공공 인프라로 이해할 수 있다.

## 3. 제3의 장소와 공공도서관의 장소성

도서관의 도시재생적 가치는 '장소성'의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Oldenburg(1989)는 집과 일터 외부에서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교류하는 공간을 '제3의 장소'로 설명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소비를 전제하지 않고 누구나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 제3의 장소적 성격을 지닌다. 이는 도시 내에서 상업공간 중심의 체류 구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도서관이 비상업적 공공체류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이다.

도서관은 또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부담 없이 공존하는 '저강도 만남'의 장소로 기능한다. Audunson(2005)은 공공도서관이 다문화・디지털 사회에서 서로 다른 이용자들이 낮은 수준의 접촉을 통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았다. Aabø et al.(2010)은 공공도서관이 광장, 공론장,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 장소, 공동활동의 장소 등 복합적 사회공간으로 기능함을 제시하였다. Noh et al.(2023) 역시 공공도서관의 소통 특성을 논의하면서, 도서관이 지역성과 공동체성, 상호작용성, 유기적 생명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공공간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도서관이 도시재생 과정에서 단절된 관계망을 회복하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 4. 장소기억과 적응적 재활용의 관점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은 장소기억의 보존과 재해석이다. Hayden(1995)은 도시의 장소가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을 담는 공공역사의 장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오래된 공공시설, 산업유산, 유휴공간을 도서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지 시설 재활용이 아니라,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새로운 공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적응적 재활용은 기존 건축물의 물리적 구조와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재생 전략이다. Bullen과 Love(2011)는 유산 건축물의 재사용이 지속가능성과 문화적 가치 보존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박성우(2020)는 유휴자원을 재활용한 공공도서관 건립 사례를 분석하면서, 도시재생 패러다임에서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앵커로 기능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또한 Noh와 Kwak(2023)은 지역문화예술자원의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논의를 통해 도서관이 지역문화자원, 장소기억, 지역콘텐츠를 연결하는 정보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장소기억을 보존하는 동시에 학습, 문화, 창작, 커뮤니티 활동을 담는 재생 앵커로 작동한다.

### 5. 도시재생형 도서관 유형화의 이론적 논리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하나의 단일 유형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도서관이 위치한 입지, 활용하는 자산,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 운영주체와 거버넌스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재생 효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심지에 위치한 도서관은 도시브랜드와 공공공간의 체류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취약 생활권의 도서관은 정보・문화 접근권과 사회적 포용을 회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유휴공간을 전환한 도서관은 근린 단위의 생활거점으로 작동하고, 산업유산을 활용한 도서관은 장소기억과 지역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앵커가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공공도서관과 도시재생의 관계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문은미(2017)는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계획 특성을 분석하였고, 노영희와 노지윤(2020)은 도서관을 도시재생 참여 주체로 규정하였다. 박성우(2020)는 유휴자원 재활용 사례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앵커 기능을 고찰하였다. 또한 Noh et al.(2023)은 공공도서관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Noh et al.(2018)는 도서관 가치에 대한 인식을, Noh와 Kwak(2023)은 지역문화자원 플랫폼 구축 가능성을 논의함으로써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사회적・문화적・정보적 기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유형화는 형태적 분류가 아니라, 도서관이 어떤 도시문제에 대응하고 어떤 방식으로 재생 효과를 창출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전략적 틀이다. 이론적으로는 도시재생론, 사회적 인프라론, 제3의 장소론, 장소기억론, 적응적 재활용론, 도서관 가치론, 지역문화

플랫폼론이 결합될 때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도시재생형 도서관을 지역의 삶을 다시 조직하는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그 유형과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 Ⅲ. 연구설계

##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지역 및 도시재생과 연계된 도서관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 사례는 단순히 특정 지역에 위치한 도서관을 의미하지 않는다. 분석 대상은 도서관이 지역의 물리적 쇠퇴, 생활권 약화, 사회적 고립, 유휴공간 발생, 장소기억의 단절, 지역경제 침체 등 도시재생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는 사례연구가 특정 현상을 실제 맥락 속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적합한 연구전략이라는 점과 관련된다(Yin, 2018). 특히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공간, 운영, 이용자, 지역사회, 정책환경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현상이기 때문에 정량적 지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사례의 맥락과 작동 구조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Stake, 1995; Yin, 2018).

본 연구의 사례는 도서관이 놓인 도시적 조건과 재생 목표에 따라 구분한다. 구체적으로는 도심 중심지에 위치하여 도시브랜드와 공공공간의 체류성을 강화하는 사례, 취약 생활권에서 사회적 포용과 접근권 회복을 지향하는 사례, 근린 유휴공간을 전환하여 생활거점으로 기능하는 사례, 산업유산 및 대형 재생지구에서 장소기억과 창의적 활동을 매개하는 사례, 민관협력 또는 상업공간과 결합하여 복합이용 구조를 형성하는 사례, 그리고 여러 기능이 결합된 혼합형 사례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분은 도서관의 유형을 단지 시설 형태가 아니라, “도시가 무엇을 회복하고자 하는가”라는 재생 목표와 연결하여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2025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0개월간 조사한 국내외 지역 및 도시재생 관련 도서관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 도서관이 지역의 물리적 쇠퇴, 생활권 약화, 사회적 고립, 유휴공간 활용, 장소기억 재구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시재생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례를 선별하였다. 최종적으로 97개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사례는 입지 특성, 자산 활용 방식, 재생 목표, 공간 구성,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거버넌스, 지역재생 기여 효과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을 위한 자료원은 현장 방문 및 관찰 기록, 도서관・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와 발간자료, 도서관 운영계획 및 홍보자료, 언론 보도자료,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관련 정책자료 등을 포함하였다. 단일 자료에 의존할 경우 사례 해석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 두 개 이상의 자료원을 교차 확인하여 사례의 입지, 조성 배경, 공간 구성, 운영 방식,

지역재생 기여 요소를 검토하였다. 현장 방문이 이루어진 사례의 경우에는 공간 구성, 이용 동선,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관찰자료로 보완하였고, 해외 사례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사례의 경우에는 공식자료, 선행연구, 언론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표 1〉 참고).

〈표 1〉 도시재생형 도서관 분석 대상 목록 및 사례 목록

| 유형 (사례수) | 사례 | 대표사례 | 유형화 근거 | 주요 재생 효과 |
|---|---|---|---|---|
| 중심지 공공공간·도시브랜드형 (27건) | 서울도서관, 서학예술마을도서관, 세종도서관, 아중호수도서관, 연화정도서관, 인제기적의도서관, 정약용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 가나자와 우미미라이 도서관, 가브리엘-로이도서관, 노포크·노위치 밀레니엄 도서관, 도크원, 리위안도서관, 브루클린공공도서관, 비아나두카스텔루 시립도서관, 솔트레이크 시립도서관,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 시애틀 공공도서관, 아른헴도서관로제, 오디중앙도서관, 유스하라 구름 위의 도서관, 이시카와현립도서관, 캐나다 캘거리 중앙도서관, 코펜하겐왕립도서관, 킹파하드국립도서관, 텐진빈하이도서관, 트리니티칼리지도서관 | 서울도서관, 시애틀공공도서관, 슈투트가르트시립도서관 | 도시 중심부 입지, 상징적 공공공간 형성, 도시 이미지 강화 | 도시브랜드 강화, 체류성 증대, 공공공간 활성화 |
| 사회적 포용·생활권 회복형 (26건) | 국사봉숲속작은도서관, 꿈그린작은도서관, 눈치 없는 도서관, 뉴평리도서관, 달성토성마을 다락방 작은도서관, 마포중앙도서관, 별똥별어린이도서관, 서래 글로벌빌리지센터 도서관, 순천기적의도서관, 앙성어울림센터, 옛이야기도서관, 원고개도서관, 이천어울림도서관, 제기동 감초마을 현진건기념도서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도서관, 포은흥해도서관, 무사시노플레이스, 버밍엄공공도서관, 스페인도서관공원, 시카고공공도서관 차이나타운분관, 올드마켓도서관, 타이난시립신중앙도서관, 키조그림책마을, 투랑가도서관, 페캄도서관, 핼리팩스중앙도서관 | 마포중앙도서관, 순천기적의도서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도서관 | 생활권 기반 서비스, 교육·문화 접근성 확대, 취약계층 포용 | 정보·문화 접근권 회복, 생활권 서비스 강화 |
| 유휴공간 전환·근린재생형 (18건) | 가재울도서관, 공감시민협력플랫폼 포레나 도서관, 구산동도서관마을, 김영수도서관,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덕천도서관, 삼덕마루 작은도서관, 산마루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아차산숲속도서관, 오동숲속도서관, 책마을해리,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 한내지혜의숲도서관, 교토아트센터도서관, 루켄발데시립도서관, 살라보르사도서관, 스쿨세븐도서관 | 구산동도서관마을, 김영수도서관, 삼덕마루 작은도서관 | 기존 주거지·마을 공간·유휴시설 전환 | 근린 생활거점 형성, 주민참여 확대, 관계망 회복 |
| 산업유산·대형 재생지구 앵커형 (12건) |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문화비축기지 T6 에코라운지, 반야월역사 작은도서관, 청주열린도서관,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 F1963도서관, 그린스퀘어공공도서관, 다이크만 비요르비카 도서관, 로칼도서관, 아즈쿠나 젠트로아 알론디가 빌바오 메디아테카, 캔자스시립도서관, 컬쳐야드도서관 | F1963도서관,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문화비축기지 T6 에코라운지 | 산업시설·대형 유휴공간의 공공 문화공간 전환 | 장소기억 재구성, 문화·창의활동 촉진 |
| 상업·민관협력 복합이용형 (9건) | 남촌어린이도서관, 다복마을작은도서관, 무계어울림센터 어린이도서관, 삼락관 작은도서관, 삼각산재미난학교 부속 재미난도서관, 팔복꿈터작은도서관, 다케오시립도서관, 디오케이중앙도서관, 아이디어 스토어 | 다케오시립도서관, 아이디어 스토어 | 민간 운영방식, 서점·카페·문화서비스 결합 | 이용자 유입 확대, 체류성 강화, 운영 지속가능성 제고 |
| 혼합·복합형 (5건) | 전일빌딩 245 디지털정보도서관, 상하이도서관 동관, 알렉산드리아도서관, 암스테르담공공도서관, 지중도서관 | 전일빌딩 245 디지털정보도서관, 암스테르담공공도서관, 상하이도서관 동관 | 도시브랜드, 문화서비스, 디지털 정보서비스, 복합공간 기능 결합 | 복합적 도시문제 대응, 통합형 공공서비스 제공 |

사례 선정은 통계적 대표성보다 이론적 적합성과 설명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Eisenhardt(1989)

는 사례연구가 이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연구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례를 의도적으로 선정하고, 사례 간 공통성과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개념적 설명력을 높여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다양한 양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0개월간(2025.5~2026.2) 조사·정리한 도시재생 관련 도서관 사례 중, 도서관이 지역의 물리적 쇠퇴, 생활권 약화, 사회적 고립, 유휴공간 활용, 장소기억 재구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시재생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례를 선별하였다. 그 결과, 중심지 공공공간·도시브랜드형, 사회적 포용·생활권 회복형, 유휴공간 전환·근린재생형, 산업유산·대형 재생지구 앵커형, 상업·민관협력 복합이용형, 혼합·복합형의 6개 유형에 해당하는 총 97개 사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사례가 어떠한 도시문제에 대응하고, 어떤 방식으로 재생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 2. 분석 기준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기준은 입지 특성, 자산 활용 방식, 재생 목표, 공간 구성,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및 거버넌스, 지역재생 기여 효과의 일곱 가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도시재생형 도서관을 하나의 건축물이나 프로그램 제공기관으로만 보지 않고, 지역문제와 공공서비스, 공간전략, 운영체계가 결합된 복합적 재생 장치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입지 특성은 도서관이 도심 중심지, 취약 생활권, 근린 단위, 산업유산지구, 대형 재생지구 등 어떤 도시적 맥락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다. 입지는 도서관의 기능과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조건이다. 중심지 도서관은 도시 이미지와 체류 경험을 강화하는 반면, 생활권 도서관은 접근권과 일상적 이용 가능성을 회복하는 데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둘째, 자산 활용 방식은 도서관이 신규 조성된 공간인지, 기존 공공시설·빈집·상가·산업유산·창고·공장 등을 전환한 공간인지에 주목한다. 이는 도시재생형 도서관이 기존 도시자산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장소기억을 어떻게 보존·전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셋째, 재생 목표는 해당 도서관이 도시브랜드 강화, 사회적 포용, 생활권 회복, 근린 공동체 형성, 산업유산 재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적 정체성 재구성 중 무엇을 핵심 목표로 삼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유형화의 핵심은 시설 형태가 아니라 재생 목표의 차이에 있다.

넷째, 공간 구성은 도서관 내부와 외부공간이 이용자의 체류, 만남, 학습, 창작, 지역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검토한다.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단지 열람공간을 넘어, 커뮤니티 공간, 전시·기록 공간, 창작 공간, 복합문화공간, 열린 광장 또는 수변·골목과 연결된 공공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섯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독서문화 프로그램, 디지털 리터러시, 지역기록, 평생학습, 문화예술, 창업·창작 지원,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분석한다. 이 기준은

도서관이 지역의 일상적 문제와 이용자 요구에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여섯째, 운영 및 거버넌스는 도서관의 운영주체, 행정체계, 민관협력, 주민참여, 지역기관 연계, 지속가능한 재원 구조를 검토한다. 도시재생은 복합적 이해관계가 얽힌 영역이므로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Ansell과 Gash(2008)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공공기관과 민간·시민 주체가 공식적이고 합의지향적인 방식으로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는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운영 분석에도 유용한 기준이 된다.

일곱째, 지역재생 기여 효과는 도서관이 지역의 접근성, 체류성, 관계망, 장소정체성, 지역경제, 주민참여, 사회적 포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다.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성과는 단순 방문자 수나 대출 권수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관이 지역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도시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하는지를 중심으로 성과를 해석한다.

분석방법은 정성적 다중사례분석을 기본으로 하였다. 먼저 각 사례에 대해 입지, 조성 배경, 자산 활용 방식, 공간 구성,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구조, 지역재생 효과를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사례 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후 사례 간 공통성과 차이를 비교하는 사례 간 비교분석을 통해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주요 유형을 도출하였다.

유형 분류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설정한 7개 분석 기준, 즉 입지 특성, 자산 활용 방식, 재생 목표, 공간 구성,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거버넌스, 지역재생 기여 효과를 기준으로 사례별 코딩표를 작성하였다. 1차 코딩에서는 각 사례의 주요 특성을 분석 기준에 따라 정리하였고, 2차 검토에서는 동일 사례가 복수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후 유형별 핵심 기준과 사례의 주요 속성을 대조하여 최종 유형을 확정하였다. 특히 상업·민관협력 복합이용형과 혼합·복합형처럼 다른 유형과 중첩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입지와 재생 목표뿐 아니라 운영 방식, 기능 결합 정도, 대표적 재생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류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단일 연구자의 직관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분석 기준에 따른 반복 검토와 사례 간 비교를 통해 유형 분류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유형 도출에 그치지 않고, 각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재생 효과의 발생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서관이 지역재생에 기여하는 방식을 접근권 회복, 비상업적 체류, 관계망 형성, 장소기억 재구성, 지역경제 및 창의활동 촉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여섯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각 유형이 단순히 어떤 형태의 도서관인가를 설명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지역의 물리적·사회적·문화적 재생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유형별 전략적 특성은 입지 조건, 자산 활용 방식, 공간 구성, 서비스 포트폴리오, 운영주체, 주민참여 및 기관 간 협력 구조를 종합하여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형 도서관이 지역의 특성과 재생 과제에 따라 어떻게 기획·운영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고, 유형별 설계 및 운영 전략의 차별성을 제시하

였다. Yin(2018)은 다중사례연구에서 사례 간 반복 논리와 비교 논리가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Eisenhardt(1989)는 사례 간 비교가 새로운 이론적 범주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유형화 분석을 병행하였다. 유형화는 사례를 단순히 나열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복잡한 현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와 차이를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분석 방식이다. Ragin(1987)은 비교연구가 질적 사례의 맥락성과 유형적 일반화를 연결하는 방법론적 장점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각 사례의 고유성을 보존하되, 입지·자산·목표·운영구조·성과의 조합을 비교하여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유형별 특징과 작동 메커니즘을 도출하였다. 사례 분석 기준 및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사례 분석 기준 및 내용

| 분석 기준 | 주요 내용 |
|---|---|
| 입지 특성 | - 중심지, 생활권, 근린, 산업유산지구, 재생지구 |
| 자산 활용 방식 | - 신규 조성, 유휴공간 전환, 산업유산 재활용, 복합시설 결합 등 |
| 재생 목표 | - 도시브랜드, 생활권 회복, 사회적 포용, 장소기억 재구성 등 |
| 공간 구성 | - 열람, 체류, 커뮤니티, 전시, 창작, 아카이브 공간 등 |
| 서비스·프로그램 | - 정보서비스, 독서문화, 디지털 리터러시, 지역기록, 창의활동 등 |
| 운영·거버넌스 | - 직영, 위탁, 민관협력, 주민참여, 기관 연계 등 |
| 지역재생 효과 | - 접근성, 관계망, 체류성, 지역정체성, 지역경제, 지속가능성 등 |

## 3. 연구질문

본 연구는 도시재생형 도서관을 문화시설이나 정보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쇠퇴와 단절을 회복시키는 공공 인프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유형화 기준, 유형별 작동 메커니즘, 그리고 도시재생 앵커로서의 전략적 조건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입지, 자산 활용, 재생 목표, 공간 구성,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거버넌스, 지역재생 기여 효과를 기준으로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도시재생형 도서관을 시설 규모나 건축 형태 중심으로 분류하는 데서 벗어나, 도서관이 놓인 도시적 맥락과 재생 목표, 운영 방식, 지역사회 기여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도시재생형 도서관을 중심지 공공공간·도시브랜드형, 사회적 포용·생활권 회복형, 유휴공간 전환·근린재생형, 산업유산·대형 재생지구 앵커형, 상업·민관협력 복합이용형, 혼합·복합형 등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둘째,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접근권 회복, 비상업적 체류, 관계망 형성, 장소기억 재구성, 지역경제 및 창의활동 촉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어떠한 재생 효과를 만들어내는가?

이 질문은 각 유형의 도서관이 지역재생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단순 기능 목록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서관이 실제로 지역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작동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즉, 도서관이 주민의 접근권을 회복하고, 머물 수 있는 공공공간을 제공하며, 사회적 신뢰와 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역의 장소기억과 정체성을 재구성하며, 문화・학습・창의활동을 촉진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셋째, 도시재생형 도서관이 지역재생의 실질적 앵커로 기능하기 위해 요구되는 설계・운영・거버넌스 조건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도서관이 재생사업의 결과물이 아니라, 지역의 삶을 지속적으로 조직하는 공공 인프라로 작동하기 위한 전략적 조건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간계획, 서비스 포트폴리오, 주민참여, 기관 간 협력, 운영 지속가능성, 성과관리 체계가 하나의 재생 목표 아래 어떻게 정렬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넷째,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유형화와 작동 메커니즘 분석은 향후 도서관정책과 도시재생정책에 어떠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가?

이 질문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단순 사례 설명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문헌정보학과 도시재생론을 연결하는 학술적 의의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정책 담당자, 도시재생 실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연구질문은 도시재생형 도서관을 개별 사례의 성공 여부로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서관이 지역재생에 기여하는 구조와 조건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도서관을 도시재생의 부속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공공성, 접근권, 관계망, 장소성, 지속가능성을 재조직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로 재정의하고자 한다. 나아가 문헌정보학, 도시재생론, 공공공간론, 지역문화정책을 연결하는 학제적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Ⅳ.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유형화

## 1. 유형화의 전제와 분석 논리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유형화는 규모, 외관, 장서 수, 프로그램 수와 같은 표면적 속성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유형화는 도서관이 어떠한 도시문제에 대응하고, 어떠한 공공적 효과를 창출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이다. 도시재생은 물리적 정비, 사회적 관계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장소 정체성 재구성,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결합된 복합적 과정이므로, 도시재생형 도서관 역시 단일한 기능이나 형태로 설명되기 어렵다(Rittel & Webber, 1973; Roberts & Sykes, 2000).

본 연구는 도시재생론, 사회적 인프라론, 장소기억론, 적응적 재활용론, 협력적 거버넌스 논의에서 도출한 기준을 바탕으로 97개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기준은 입지 특성, 자산 활용 방식, 재생 목표, 공간 구성,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거버넌스, 지역재생 기여 효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중심지 공공공간·도시브랜드형, 사회적 포용·생활권 회복형, 유휴공간 전환·근린재생형, 산업유산·대형 재생지구 앵커형의 네 가지 기본 유형을 도출하였다. 또한 상업·민관협력 복합이용형은 운영·거버넌스 기반 확장 유형으로, 혼합·복합형은 복수 유형이 결합된 조합형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유형화는 이론적 분석 기준과 사례 기반 비교분석을 결합한 정성적 다중사례분석의 결과이다(Doty & Glick, 1994; Ragin, 1987).

## 2. 중심지 공공공간·도시브랜드형

중심지 공공공간·도시브랜드형은 도심 광장, 수변공간, 교통결절점, 문화지구, 상업 중심지 등 도시의 가시성과 유동성이 높은 장소에 조성되는 도서관 유형이다. 이 유형은 도서관을 도시의 대표 공공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과 방문객의 체류 경험을 강화하며, 도시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시브랜드가 도시의 정체성, 장소 경험, 공공공간의 질을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Kavaratzis & Ashworth, 2005), 중심지형 도서관은 도시의 상징성과 일상성을 동시에 매개하는 전략적 시설이다.

서울도서관은 기존 서울시청사를 시민의 지식·문화 접근 공간으로 전환한 사례로, 도시 중심부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결합한 대표적 사례이다. 시애틀공공도서관, 슈투트가르트시립도서관, 텐진빈하이도서관 역시 건축적 상징성, 개방형 열람공간, 도시적 가시성을 바탕으로 도시브랜드와 체류형 공공공간 형성에 기여한다. 이 유형의 핵심 성과는 단순 방문자 수가 아니라 도시 중심부의 체류성 증대, 시민 접근권 확대, 공공공간 네트워크 강화에 있다. 다만 관광·상징·소비 중심으로 기획될 경우 지역 주민의 일상적 이용과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도시브랜드와 시민 접근권의 균형이 중요하다.

## 3. 사회적 포용·생활권 회복형

사회적 포용·생활권 회복형은 문화·정보·교육 접근성이 낮거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된 생활권에서 도서관이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회복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화려한 상징시설보다 주민의 일상적 이용 가능성을 높이고, 정보·문화·학습 격차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공공도서관은 교육, 문화, 포용, 정보 접근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서(IFLA & UNESCO, 2022), 취약 생활권에서 주민의 회복력과 사회적 연결성을 높이는 사회적 인프라로 기능한다(Klinenberg, 2018; Mattern, 2014).

마포중앙도서관은 평생학습, 청소년 활동,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생활권 단위의 교육·문화 접근성을 강화한 사례이다. 순천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와 가족 중심의 독서문화와 공동체 경험을 제공하며,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도서관은 행정구역을 넘어 공동 생활권 기반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유형은 장서 제공과 독서문화 프로그램뿐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공공정보 접근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격차 완화와도 연결된다(van Dijk, 2005; Warschauer, 2003). 따라서 성과는 대규모 방문객 유치보다 반복적 이용, 접근권 개선, 사회적 고립 완화, 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 확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 4. 유휴공간 전환·근린재생형

유휴공간 전환·근린재생형은 빈집, 폐점포, 노후 공공시설, 창고 등 지역 내 소규모 유휴공간을 도서관이나 독서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대규모 개발보다 근린 단위의 생활 접점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도시의 활력이 거리의 일상적 관계, 보행, 혼합적 이용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Jacobs, 1961), 근린재생형 도서관은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이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이다. 또한 집과 일터 외부에서 주민이 부담 없이 머물고 교류할 수 있는 제3의 장소로도 기능한다(Oldenburg, 1989).

구산동도서관마을은 기존 주거지와 골목의 맥락을 보존하면서 도서관 기능을 결합한 사례로, 노후 공간이 생활문화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영수도서관, 삼덕마루 작은도서관, 아차산숲속도서관 등도 지역의 기존 공간과 생활동선에 밀착하여 독서·문화·커뮤니티 기능을 수행한다. 이 유형의 성과는 공간 규모가 아니라 접근성, 운영 리듬, 주민참여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안정적 운영 인력과 프로그램이 뒷받침될 때 유휴공간은 단순 재활용을 넘어 근린 관계망과 지역 활력을 회복하는 거점으로 기능한다.

### 5. 산업유산·대형 재생지구 앵커형

산업유산·대형 재생지구 앵커형은 공장, 창고, 항만, 철도시설 등 기존 산업시설이나 대형 유휴공간을 도서관으로 전환하거나, 대규모 도시재생지구 안에서 도서관이 핵심 앵커시설로 기능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공간 재활용을 넘어 지역의 산업기억과 장소성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학습·문화·창작 기능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산 건축물의 적응적 재활용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과 문화적 가치 보존에 기여할 수 있으며(Bullen & Love, 2011), 장소는 공동체 기억과 공공역사를 담는 매개로 작동한다(Hayden, 1995).

F1963도서관은 산업시설의 장소성을 문화·예술·독서 기능과 결합한 사례이며, 문화비축기지

T6 에코라운지는 기존 비축시설의 기억을 생태・문화적 이용과 연결한 사례이다. 마산지혜의바다 도서관과 청주열린도서관도 대형 유휴공간을 독서문화와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으로 재구성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유형의 성과는 장소기억 보존, 대형 유휴공간의 공공적 재활용, 재생지구 내 유동과 체류의 조직, 창의활동 촉진에서 나타난다. 다만 초기 조성비, 유지관리비, 구조 보강, 상업화 압력 등이 수반되므로 건축적 재생과 운영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6. 상업・민관협력 복합이용형

상업・민관협력 복합이용형은 도서관이 서점, 카페, 문화시설, 창업공간, 민간 운영기관 등과 결합하여 운영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입지나 재생 목표보다 운영 방식과 거버넌스 구조의 특성이 강한 확장 유형이다. 공공재정만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민관협력은 이용자 유입, 체류시간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가 공공기관과 민간・시민 주체의 합의지향적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점에서(Ansell & Gash, 2008), 이 유형은 운영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확장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다케오시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운영에 서점・카페・문화서비스 방식을 결합하여 이용 경험과 체류성을 강화한 사례이다. 아이디어 스토어는 도서관, 평생학습, 지역정보,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합한 복합 공공서비스 모델이다. 그러나 이 유형은 공공성과 상업성의 긴장을 관리해야 한다. 민간 운영방식이나 상업공간과 결합할 경우 무료 접근권, 장서 개발의 독립성, 취약계층 이용권, 이용자 데이터 보호, 공공서비스의 비배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van Dijck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유형을 독립적 공간 유형이 아니라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운영 지속가능성을 설명하는 운영・거버넌스형 유형으로 해석한다.

### 7. 혼합・복합형

혼합・복합형은 앞서 제시한 유형들이 하나의 사례 안에서 결합되어 나타나는 유형이다. 현실의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하나의 목표만으로 기획되기 어렵다. 도심 중심지에 위치하면서 사회적 포용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산업유산을 활용하면서 민관협력 운영구조를 채택할 수 있으며, 유휴공간 전환형이면서 지역브랜드 형성에 기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혼합・복합형은 유형의 모호성이 아니라,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전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일빌딩 245 디지털정보도서관은 역사적 장소성, 시민기억, 디지털 정보서비스, 복합문화 기능이 결합된 사례이다. 암스테르담공공도서관은 도시브랜드, 문화서비스, 체류형 공공공간, 시민학습 기능을 함께 수행하며, 상하이도서관 동관 역시 도시 상징성, 대규모 정보서비스, 문화복합

기능이 결합된 혼합형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유형의 핵심은 기능을 많이 결합하는 데 있지 않고, 핵심 재생 목표를 중심으로 공간・서비스・운영을 정렬하는 데 있다. 목표가 불명확할 경우 프로그램 과잉, 운영 혼선, 성과평가의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기획・운영 역량이 요구된다.

### 8. 유형화의 종합적 의의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유형화는 도서관을 도시재생의 부속시설로 보는 관점을 넘어, 도서관이 지역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심지 공공공간・도시브랜드형은 도시의 상징성과 체류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포용・생활권 회복형은 접근권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며, 유휴공간 전환・근린재생형은 근린 단위의 관계망을 복원한다. 산업유산・대형 재생지구 앵커형은 장소기억과 창의활동을 결합하고, 상업・민관협력 복합이용형은 운영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모색하며, 혼합・복합형은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통합 전략으로 기능한다.

결국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유형화는 사례 분류 자체가 아니라, 지역의 재생 과제에 적합한 도서관 모델을 선택하고 설계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틀이다(Doty & Glick, 1994; Ragin, 1987). 동일한 도서관이라도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자산을 활용하며, 누구의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설계 원리, 운영 방식, 성과지표는 달라져야 한다(노영희, 노지윤, 2020; Roberts & Sykes, 2000). 따라서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핵심은 보편적 의미의 '좋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재생 과제에 맞는 도서관을 정밀하게 기획하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는 데 있다(문은미, 2017; 박성우, 2020).

## Ⅴ.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작동 메커니즘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의의는 지역에 도서관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핵심은 도서관이 지역의 쇠퇴, 단절, 공백, 불평등, 장소기억의 약화와 같은 도시문제에 어떻게 개입하고, 그 개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재생 효과로 전환되는가에 있다. 본 연구는 97개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작동 메커니즘을 접근권 회복, 비상업적 체류, 관계망 형성, 장소기억 재구성, 지역경제 및 창의활동 촉진, 운영・거버넌스 구축의 여섯 차원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도서관을 단순 정보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삶을 다시 조직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이해하는 관점에 기초한다(Klinenberg, 2018; Mattern, 2014).

### 1. 접근권 회복과 사회적 포용 메커니즘

접근권 회복은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가장 기초적인 작동 메커니즘이다. 도시 쇠퇴는 물리적 노후화뿐 아니라 교육, 문화, 정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 약화와 공공서비스 배제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이때 도서관은 생활권 안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거점으로 기능하며 지역 내 접근 격차를 완화한다.

IFLA-UNESCO 공공도서관 선언은 공공도서관을 교육, 문화, 포용, 정보 접근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규정하고, 차별 없는 이용 가능성을 강조한다(IFLA & UNESCO, 2022).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주민이 교육・문화・정보 자원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

마포중앙도서관, 순천기적의도서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도서관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잘 보여준다. 마포중앙도서관은 교육・문화・청소년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순천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와 가족 중심의 독서문화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도서관은 행정구역을 넘어 공동 생활권 주민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 간 접근권 회복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문화・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도서관은 사회적 포용의 실질적 기반이 된다. 정보격차는 인터넷이나 기기의 보유 여부를 넘어 교육, 고용, 행정서비스, 문화참여 기회의 차이로 이어진다(van Dijk, 2005; Warschauer, 2003). 따라서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장서 제공을 넘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공공정보 접근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사회적・디지털 참여 조건을 마련한다.

### 2. 비상업적 체류와 생활리듬 형성 메커니즘

비상업적 체류와 생활리듬 형성은 도시재생 효과가 주민의 일상 속에 지속되도록 하는 핵심 과정이다. 도시재생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특정 장소를 단순히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머물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Gehl(2010)은 좋은 도시가 이동의 효율성보다 머무름, 관찰, 상호작용이 가능한 공공공간의 질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 관점에서 도서관은 소비를 전제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대표적 공공공간이다.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체류성은 좌석 수나 건축 규모가 아니라, 주민이 심리적 부담 없이 들어오고 일정 시간 머물며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생활 리듬을 만드는 데 있다. Oldenburg(1989)의 제3의 장소 개념 역시 집과 직장 또는 학교 외부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머물고 교류할 수 있는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공도서관은 구매 능력을 이용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3의 장소의

개방성과 일상성을 공공적으로 구현한다.

서울도서관, 시애틀공공도서관, 슈투트가르트시립도서관, 암스테르담공공도서관은 체류형 공공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을 보여준다. 서울도서관은 도심 속 비상업적 체류 공간을 제공하고, 시애틀공공도서관과 슈투트가르트시립도서관은 개방형 내부공간과 건축적 상징성을 통해 장시간 체류를 유도한다. 암스테르담공공도서관은 열람, 문화, 휴식, 정보서비스를 결합한 복합 체류형 도서관으로 도시 중심부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이처럼 도서관은 도시의 시간을 단속적 방문에서 반복적 체류로 전환시키는 장치로 작동한다.

### 3. 관계망 형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 메커니즘

관계망 형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은 도시재생형 도서관이 지역사회 내부의 단절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도시재생의 성패는 물리적 공간 조성 여부보다 그 공간에서 지속적인 관계와 활동이 발생하는가에 달려 있다. 도서관은 다양한 연령, 계층, 배경의 이용자가 동일한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과도한 관계 부담 없이 공존할 수 있는 장소이다.

Audunson(2005)은 공공도서관을 다문화・디지털 사회에서 저강도 만남이 가능한 장소로 설명하였다. 저강도 만남은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머물며 공존의 규칙을 학습하게 하는 접촉이다. Aabø et al.(2010) 역시 공공도서관이 광장, 만남의 장소, 공론장, 공동활동의 장소 등 복합적 사회공간으로 기능한다고 분석하였다.

구산동도서관마을, 책마을해리, 순천기적의도서관, 별똥별어린이도서관은 관계망 형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구산동도서관마을은 주거지와 골목의 맥락을 보존하면서 주민의 독서・문화・모임 활동을 수용하였고, 책마을해리는 독서, 출판, 마을문화, 교육 활동을 결합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였다. 순천기적의도서관과 별똥별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와 가족을 매개로 세대 간 만남과 공동활동을 활성화한 사례이다.

Vårheim et al.(2008, 877-892)는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자본 형성과 지역사회 신뢰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독서모임, 주민참여 프로그램, 지역기록 활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동학습 활동 등을 통해 일회적 이용자를 관계적 이용자로 전환시킨다. 이때 도서관은 공동체를 강제적으로 조직하는 공간이 아니라, 느슨하고 반복적인 접촉을 통해 지역사회가 스스로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매개 공간으로 기능한다.

### 4. 장소기억 보존과 재해석 메커니즘

장소기억의 보존과 재해석은 도시재생형 도서관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도시재생은 낡은 공간을 제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역의 역사, 산업, 생활문화, 주민 경험이 축적된 장소를 어떻게 해석하고 현재적 의미로 전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Hayden(1995)은 도시공간이 공동체의 기억과 공공역사를 담는 매개이며, 장소기억을 해석하는 작업이 지역 정체성 형성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도서관은 지역자료, 구술자료, 사진, 지도, 생활사 기록, 산업유산 자료를 수집・조직・서비스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전시, 교육, 아카이브, 시민참여형 기록활동과 연결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장소기억을 단순히 보존하는 수장고가 아니라, 주민이 자신의 지역을 다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해석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F1963도서관, 문화비축기지 T6 에코라운지,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전일빌딩 245 디지털정보도서관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F1963도서관은 기존 산업시설의 장소성을 문화・예술・독서 기능과 결합하였고, 문화비축기지 T6 에코라운지는 비축시설의 물리적 기억을 생태・문화적 이용으로 전환하였다.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은 대형 유휴공간을 독서문화와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전일빌딩 245 디지털정보도서관은 역사적 장소성, 시민기억, 디지털 정보서비스가 결합된 복합적 사례이다.

특히 산업유산이나 유휴공간을 도서관으로 전환하는 경우 장소기억 메커니즘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Bullen과 Love(2011)는 유산 건축물의 적응적 재활용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과 문화적 가치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도서관은 기존 건축물의 기억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학습, 문화, 창작, 커뮤니티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과거의 공간을 현재의 공공적 자산으로 전환한다.

### 5. 지역경제 및 창의활동 촉진 메커니즘

지역경제와 창의활동 촉진은 도시재생형 도서관이 지역의 활동 밀도와 가치순환을 높이는 방식이다. 도서관은 직접적 상업시설은 아니지만, 지역의 유동, 체류, 문화활동, 창의적 실험을 촉진하는 기반시설이 될 수 있다. 도서관 조성은 주민과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주변 상권・문화시설・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며, 지역 내 활동 밀도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이때 경제적 효과는 단순 소비 증가가 아니라 지역 내부의 가치순환과 공공성 강화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Aabø(2005, 487-495)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이용자에게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공공서비스임을 제시하였다. Slatter와 Howard(2013, 272-284)는 공공도서관의 메이커스페이스가 시민의 학습, 제작, 협업, 기술 활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F1963도서관,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 청주열린도서관, 아이디어 스토어는 지역

경제 및 창의활동 촉진 메커니즘과 연결된다. F1963도서관은 산업시설 재생과 문화・상업・독서 기능을 결합하여 방문객의 체류와 지역 문화활동을 촉진한다.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은 창의적 재생공간 안에서 그림책과 문화예술 활동을 결합하였고, 아이디어 스토어는 도서관, 평생학습, 지역정보 서비스를 통합하여 주민 역량 개발과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그러나 이 메커니즘은 상업화와 구분되어야 한다. 도서관의 지역경제 기여는 수익 창출보다 주민 역량 강화, 문화활동 확산, 주변 공간 활력 증진, 지역 콘텐츠 재생산,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나타난다. 따라서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경제적 효과는 방문객 수나 매출 효과만이 아니라, 지역의 학습경제와 창의적 생태계가 얼마나 강화되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 6. 운영・거버넌스와 지속가능성 메커니즘

운영・거버넌스와 지속가능성은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장기적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조건이다.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공간 조성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개관 이후 어떤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협력체계 속에서 운영하는가가 재생 효과의 지속성을 결정한다. 도시재생은 행정, 주민, 민간기관, 문화예술단체, 교육기관, 지역상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결합되는 영역이므로, 도서관 역시 단일 기관의 운영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

Ansell과 Gash(2008)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공공기관과 민간・시민 주체가 공식적이고 합의지향적인 방식으로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이 관점에서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거버넌스는 단순한 위탁운영이나 민관협력 계약을 넘어, 지역 내 다양한 행위자가 도서관의 목표, 프로그램, 공간 활용, 성과관리에 참여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다케오시립도서관, 아이디어 스토어,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도서관, 전일빌딩 245 디지털정보도서관은 운영・거버넌스와 지속가능성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다케오시립도서관은 민간 운영방식과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결합하여 이용자 경험과 체류성을 강화한 사례이며, 아이디어 스토어는 도서관, 평생학습, 지역정보, 생활서비스를 결합한 운영모델이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도서관은 행정구역을 넘어선 협력 운영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전일빌딩 245 디지털정보도서관은 역사적 장소성과 디지털 정보서비스, 시민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운영형 사례이다.

도시재생형 도서관에서 거버넌스 메커니즘은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하다. 첫째, 주민참여를 통해 도서관이 지역의 실제 요구와 괴리되지 않도록 한다. 둘째, 지역기관 간 협력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가 교육, 복지, 문화, 일자리, 관광, 도시계획과 연결되도록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통해 공간 조성 이후의 프로그램 공백과 운영 약화를 방지한다. 따라서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성과는 개관 시점의 시설 완성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문제를 조정하고 공공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운영역량에서 결정된다.

## 7. 도시재생형 도서관 작동 메커니즘의 종합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여섯 가지 메커니즘이 상호 연결될 때 실질적인 재생 효과를 창출한다. 접근권 회복은 주민이 도서관에 도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마련한다. 비상업적 체류는 도서관을 반복적으로 머무는 생활공간으로 만든다. 관계망 형성은 주민 간 접촉과 신뢰를 축적한다. 장소기억 재구성은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여 정체성을 강화한다. 지역경제와 창의활동 촉진은 도서관을 지역 활력과 학습경제의 기반으로 확장한다. 운영·거버넌스는 이러한 효과가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결국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공간, 서비스, 기억, 관계, 운영체계가 결합될 때 지역재생의 실질적 앵커로 기능한다.

〈표 3〉 도시재생형 도서관 유형별 분석 결과

| 유형 | 핵심 재생 목표 | 주요 작동 메커니즘 | 대표 사례 | 대표 성과 |
|---|---|---|---|---|
| 중심지 공공공간·도시브랜드형 | 도시 이미지와 체류성 강화 | 공공공간 활성화, 도시브랜드 형성 | 서울도서관, 시애틀공공도서관, 슈투트가르트시립도서관 | 도시 중심부 체류 증가, 상징성 강화 |
| 사회적 포용·생활권 회복형 | 접근권과 포용성 회복 | 정보·문화·디지털 접근 지원 | 마포중앙도서관, 순천기적의도서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도서관 | 취약계층 이용 확대, 생활권 서비스 회복 |
| 유휴공간 전환·근린재생형 | 근린 생활거점 형성 | 유휴공간 재활용, 주민참여 | 구산동도서관마을, 김영수도서관, 삼덕마루 작은도서관 | 마을 단위 관계망 회복 |
| 산업유산·대형 재생지구 앵커형 | 장소기억 재구성 | 적응적 재활용, 지역기록, 문화재생 | F1963도서관, 문화비축기지 T6 에코라운지,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 산업유산의 공공적 전환 |
| 상업·민관협력 복합이용형 | 운영 지속가능성 확보 | 민관협력, 복합서비스 | 다케오시립도서관, 아이디어 스토어 | 체류성·이용자 유입 확대 |
| 혼합·복합형 | 복합 도시문제 대응 | 유형 간 조합, 통합 운영 | 전일빌딩 245 디지털정보도서관, 암스테르담공공도서관, 상하이도서관 동관 | 복합적 재생 효과 창출 |

따라서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작동 구조는 단선적이지 않다. 도서관은 먼저 접근 가능한 공공공간으로 주민을 끌어들이고, 체류와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적 이용을 형성하며, 그 과정에서 관계망과 신뢰를 축적한다. 동시에 지역의 장소기억을 재해석하고, 문화·학습·창의활동을 통해 지역의 가치순환을 촉진한다. 이러한 과정이 협력적 운영체계와 결합될 때 도서관은 도시재생의 부속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삶을 다시 조직하는 실질적 앵커로 작동한다.

결국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핵심은 "도서관이 무엇을 제공하는가"보다 "도서관을 통해 지역의 어떤 조건이 회복되는가"에 있다. 이 점에서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정보서비스 기관, 문화공간, 커뮤니티 거점, 지역기록기관, 창의활동 플랫폼, 협력적 거버넌스 장치가 결합된 복합적 공공 인프라로 이해되어야 한다.

# Ⅵ. 논 의

본 연구는 도시재생형 도서관을 단순히 지역에 조성된 문화시설이나 정보서비스 기관으로 보지 않고, 지역의 물리적・사회적・문화적 쇠퇴에 대응하는 공공 인프라로 해석하였다. 앞선 유형화와 작동 메커니즘 분석을 종합하면,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지역의 접근권을 회복하고, 비상업적 체류를 가능하게 하며, 사회적 관계망과 장소기억을 재구성하고, 지역의 문화・창의활동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복합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는 공공도서관을 교육, 문화, 포용, 정보 접근의 핵심 기관으로 규정한 IFLA-UNESCO 공공도서관 선언의 방향과도 연결된다(IFLA & UNESCO, 2022).

## 1.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공공 인프라적 의미

첫째, 본 연구의 핵심 논의는 도서관이 도시재생의 "결과물"이 아니라 재생을 지속시키는 "작동 장치"라는 점이다. 많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도서관은 노후지역에 새롭게 공급되는 문화시설, 생활 SOC, 복합커뮤니티시설의 일부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도서관의 공간적・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도서관은 단순히 재생사업 이후 만들어지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머물며, 배우고 교류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재생 효과를 일상 속에 고정시키는 제도적 장치이다.

Klinenberg(2018)는 공공도서관을 대표적인 사회적 인프라로 설명하면서, 도서관이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고 보았다. Mattern(2014) 역시 도서관을 지식 저장소가 아니라 도시의 사회적・기술적・지적 인프라가 결합된 기반시설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본질은 "무엇을 소장하고 제공하는가"보다 "지역의 어떤 삶의 조건을 회복시키는가"에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성과는 개관 여부, 시설 규모, 방문자 수, 프로그램 횟수만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오히려 도서관이 지역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주민의 접근권을 어떻게 회복하며, 지역 내 관계망과 신뢰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물리적 공간정비와 사회적 회복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 2. 유형별 재생 전략의 차별성과 정책적 함의

둘째,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하나의 보편적 모델로 일반화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중심지 공공공간・도시브랜드형, 사회적 포용・생활권 회복형, 유휴공간 전환・근린재생형, 산업유산・대형 재생지구 앵커형, 상업・민관협력 복합이용형, 혼합・복합형

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 구분은 도시재생형 도서관이 입지, 자산, 목표, 운영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작동 논리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심지 공공공간・도시브랜드형 도서관은 도시의 대표 공간으로서 체류성과 상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유형에서는 도서관이 도시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도시를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성과평가는 도시브랜드, 유동인구, 체류시간, 공공공간의 질, 시민 접근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반면 사회적 포용・생활권 회복형 도서관은 취약 생활권에서 정보・문화・교육 접근권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유형에서는 화려한 건축이나 관광객 유치보다 지역 주민의 반복적 이용, 취약계층 접근성, 디지털 리터러시, 생활권 내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중요하다. van Dijk(2005)와 Warschauer(2003)가 지적한 것처럼 정보격차는 사회참여와 기회의 격차로 확장될 수 있으므로, 생활권 회복형 도서관은 도시재생의 포용성을 실질화하는 핵심 시설로 이해되어야 한다.

유휴공간 전환・근린재생형 도서관은 작은 규모의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지역의 일상적 접점을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유형은 대규모 랜드마크 조성보다 주민의 보행권, 생활권, 참여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산업유산・대형 재생지구 앵커형은 장소기억과 공공적 재활용의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Bullen과 Love(2011)는 유산 건축물의 적응적 재활용이 문화적 가치 보존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산업유산형 도서관이 과거의 장소를 현재의 공공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논리를 설명한다.

결국 도시재생형 도서관 정책은 “좋은 도서관 모델”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와 목표에 따라 유형별 전략을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3. 도시재생 앵커로서의 설계・운영・거버넌스 조건

셋째,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복합화와 민관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동시에, 공공성 훼손의 위험도 함께 안고 있다. 최근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서점, 카페, 문화시설, 창작공간, 상업시설, 민간 운영기관과 결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화는 이용자 유입, 체류시간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이 지나치게 상업적 공간 논리에 종속될 경우, 무료성, 개방성, 비배제성, 정보 접근권이라는 공공도서관의 기본 가치가 약화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사이의 긴장을 정교하게 조정해야 한다. Ansell과 Gash(2008)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공공기관과 민간・시민 주체가 공식적이고 합의지향적인 방식으로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민관협력 역시 위탁운영이나 상업시설 결합이 아니라, 공공가치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운영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협력적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합화의 핵심은 “기능을 얼마나 많이 결합하는가”가 아니라 “도서관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재생 효과를 어떻게 확장하는가”에 있다. 공공도서관은 특정 소비자 집단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 기관이다. 그러므로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복합화는 상업적 매력, 운영 효율, 이용자 편의와 함께 정보권, 문화권, 학습권, 취약계층 접근권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4. 공공성과 복합화의 균형

넷째,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성과는 전통적 도서관 평가지표만으로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 기존 도서관 평가는 장서 수, 대출 권수, 방문자 수, 프로그램 운영 횟수, 회원 수 등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지표는 도서관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도시재생형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복합적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성과는 접근성, 체류성, 사회적 관계망, 장소기억, 지역경제, 문화활동, 주민참여, 거버넌스 지속성 등 다차원적 지표로 평가되어야 한다. 예컨대 사회적 포용・생활권 회복형 도서관은 취약계층 이용률,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참여, 지역 내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주민의 생활만족도 변화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심지 공공공간・도시브랜드형은 체류시간, 공공공간 이용 다양성, 도시 이미지 변화, 주변 문화시설과의 연계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Aabø et al.(2010)은 공공도서관이 광장, 만남의 장소, 공론장, 공동활동의 공간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서관의 성과는 이용량 중심의 단순 지표를 넘어,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이 어떤 관계와 활동을 생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사업 준공 이후의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개관 초기의 방문객 증가가 반드시 지역재생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일상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망, 프로그램, 지역협력, 장소정체성을 축적해 가는가이다. 따라서 성과평가는 단기 산출지표보다 중장기적 변화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 5. 성과평가 체계의 재구성 필요성

다섯째,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장소기억과 지역정체성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도시재생은 낡은 공간을 없애고 새로운 시설을 공급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기억을 현재적 가치로 전환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Hayden(1995)은 도시공간이 공동체의 기억과 공공역사를 담는 장소이며, 장소기억이 지역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지역자료, 구술자료, 사진, 지도, 생활사 기록, 산업유산 자료 등을 수집・보존・서비스하는 기관으로서 장소기억을 제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특히 산업유산이나 유휴공간을 도서관으로 전환하는 경우, 도서관은 과거의 물리적 흔적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전시, 교육, 아카이브,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지역의 현재적 자산으로 재구성한다.

따라서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지역의 정체성을 외부 방문객에게 보여주는 전시적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자신의 지역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미래를 상상하는 해석 공간이 되어야 한다. 장소기억이 공공적으로 재해석될 때, 도서관은 지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도시재생의 문화적 앵커로 기능할 수 있다.

### 6.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학제적 접근 필요

여섯째, 도시재생형 도서관 연구는 문헌정보학 내부의 논의만으로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문헌정보학, 도시계획, 공공공간론, 지역문화정책, 사회복지, 거버넌스 연구가 교차하는 주제이다. 도서관의 장서와 서비스만이 아니라 입지, 공간, 도시 맥락, 생활권, 주민참여, 지역경제, 장소기억, 운영체계가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도서관을 도시정책의 주변 시설이 아니라 지역재생 전략의 핵심 인프라로 위치시킨다. 이는 도서관정책과 도시재생정책을 분리된 영역으로 다루기보다, 지역의 삶을 회복하는 통합적 공공정책으로 연결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소멸, 디지털 격차,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서관은 생활권 단위의 공공서비스를 통합하고 주민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도시재생형 도서관 정책은 도서관 건립계획, 도시재생계획, 문화정책, 평생학습정책, 디지털 포용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상호 연계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단일 부서의 시설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공공성을 재구성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 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시재생형 도서관을 단순한 문화시설이나 정보서비스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쇠퇴와 단절을 회복시키는 사회적 인프라이자 도시재생의 실질적 앵커로 규정하였다. 도시재생이 물리적 정비를 넘어 생활권 회복, 사회적 포용, 장소기억의 재구성, 지역경제의 순환,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과정이라면, 도서관은 이러한 기능을 공공적 방식으로 결합하는 핵심 기반시설이

다(Klinenberg, 2018; Roberts & Sykes, 2000).

분석 결과,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중심지 공공공간・도시브랜드형, 사회적 포용・생활권 회복형, 유휴공간 전환・근린재생형, 산업유산・대형 재생지구 앵커형, 상업・민관협력 복합이용형, 혼합・복합형으로 유형화되었다. 각 유형은 동일한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공유하지만, 대응하는 도시 문제와 재생 방식은 상이하다. 중심지형은 도시의 상징성과 체류성을 강화하고, 생활권 회복형은 정보・문화・교육 접근권을 복원하며, 근린재생형은 일상적 관계망을 회복한다. 산업유산형은 장소기억을 현재적 공공자산으로 전환하고, 민관협력형은 공공성과 운영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모색하며, 혼합형은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전략적 조합으로 기능한다.

또한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접근권 회복, 비상업적 체류, 관계망 형성, 장소기억 재구성, 지역경제 및 창의활동 촉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재생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이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이 다시 접근하고, 머물고, 만나고, 기억하고, 참여하도록 만드는 공공적 장치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재생형 도서관의 핵심 질문은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 도서관을 통해 지역의 어떤 삶의 조건을 회복할 것인가”에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지역문제 진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도서관의 유형과 기능은 건축 형태가 아니라 지역의 쇠퇴 원인, 생활권 조건, 유휴자산의 성격, 사회적 관계망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도시재생형 도서관 정책은 유형별로 차별화되어야 한다. 중심지형은 도시브랜드와 공공공간의 질을, 생활권 회복형은 접근성과 포용성을, 근린재생형은 주민참여와 일상성을, 산업유산형은 장소기억과 창의활동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복합화와 민관협력은 공공성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민간 역량과 상업적 기능의 결합은 운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도서관의 무료성, 개방성, 보편적 접근권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IFLA & UNESCO, 2022). 넷째, 성과평가는 방문자 수, 대출 권수, 프로그램 수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권 접근성, 체류시간, 주민참여, 사회적 관계망, 장소정체성, 취약계층 이용, 지역기관 연계, 운영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4).

결론적으로 도시재생형 도서관은 도시재생의 후속시설이 아니라, 도시재생이 주민의 일상 속에서 지속되도록 만드는 작동 인프라이다. 도서관은 도시의 중심과 주변, 과거와 미래,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회복을 연결하는 공공 플랫폼이며, 지역의 삶을 다시 조직하는 실천적 공공정책 수단이다. 향후 도시재생정책은 도서관을 단순 시설 공급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지역문제 해결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초기 기획 단계의 핵심 인프라로 포함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노영희, 노지윤 (2020). 도시재생 참여 주체로서 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1), 89-113. https://doi.org/10.14699/kbiblia.2020.31.1.089

문은미 (2017).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도서관 계획 특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6(5), 143-151. https://doi.org/10.14774/JKIID.2017.26.5.143

박성우 (2020). 도시재생 패러다임에서 사회적 앵커로서의 공공도서관 고찰: 유휴자원 재활용을 통한 공공도서관 건립 사례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2), 133-157. https://doi.org/10.16981/kliss.51.2.202006.133

Aabø, S. (2005). Are public libraries worth their price? A contingent valuation study of Norwegian public libraries. New Library World, 106(11/12), 487-495. https://doi.org/10.1108/03074800510634973

Aabø, S., Audunson, R., & Vårheim, A. (2010). How do public libraries function as meeting place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2(1), 16-26. https://doi.org/10.1016/j.lisr.2009.07.008

Ansell, C. & Gash, A. (2008).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543-571. https://doi.org/10.1093/jopart/mum032

Audunson, R. (2005). The public library as a meeting-place in a multicultural and digital context: The necessity of low-intensive meeting-places. Journal of Documentation, 61(3), 429-441. https://doi.org/10.1108/00220410510598562

Bullen, P. A. & Love, P. E. D. (2011). Adaptive reuse of heritage buildings. Structural Survey, 29(5), 411-421. https://doi.org/10.1108/02630801111182439

Doty, D. H. & Glick, W. H. (1994). Typologies as a unique form of theory building: Toward improved understanding and modeling.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2), 230-251. https://doi.org/10.5465/amr.1994.9410210748

Eisenhardt, K. M. (1989). Building theories from case study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4), 532-550. https://doi.org/10.2307/258557

Gehl, J. (2010). Cities for People. Washington, DC: Island Press.

Hayden, D. (1995). The Power of Place: Urban Landscapes as Public History. Cambridge, MA: MIT Press.

IFLA & UNESCO (2022). The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2022. Available:

https://www.ifla.org/public-library-manifest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4).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Methods and procedures for assessing the impact of libraries (ISO 16439:2014). Available: https://www.iso.org/standard/56756.html

Jacobs, J.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Random House.

Kavaratzis, M. & Ashworth, G. J. (2005). City branding: An effective assertion of identity or a transitory marketing trick?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96(5), 506-514. https://doi.org/10.1111/j.1467-9663.2005.00482.x

Klinenberg, E. (2018). Palaces for the People: How Social Infrastructure Can Help Fight Inequality, Polarization, and the Decline of Civic Life. New York: Crown.

Mattern, S. (2014). Library as infrastructure. Places Journal. https://doi.org/10.22269/140609

Noh, Y., Kim, Y.-J., & Kwak, W. (2023). A study on defining communicative characteristics of public libra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13(3), 95-122. https://doi.org/10.5865/IJKCT.2023.13.3.095

Noh, Y. & Kwak, W. (2023).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a linked database for an integrated service platform of local culture and arts resources.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13(4), 119-137. https://doi.org/10.5865/IJKCT.2023.13.4.119

Noh, Y., Lee, K. H., & Choi, S.-K. (2018). A study on comparing the perception between librarians and users about libraries' value.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8(2), 67-100. https://doi.org/10.5865/IJKCT.2018.8.2.067

Oldenburg, R. (1989). The Great Good Place: Cafés, Coffee Shops, Community Centers, Beauty Parlors, General Stores, Bars, Hangouts, and How They Get You Through the Day. New York: Paragon House.

Ragin, C. C. (1987). The Comparative Method: Moving Beyo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rateg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ittel, H. W. J. & Webber, M. M. (1973). Dilemmas in a general theory of planning. Policy Sciences, 4(2), 155-169. https://doi.org/10.1007/BF01405730

Roberts, P. & Sykes, H. eds. (2000). Urban Regeneration: A Handbook. London: SAGE.

Slatter, D. & Howard, Z. (2013). A place to make, hack, and learn: Makerspaces in Australian public libraries. The Australian Library Journal, 62(4), 272-284.

https://doi.org/10.1080/00049670.2013.853335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SAGE.

van Dijck, J., Poell, T., & de Waal, M. (2018). The Platform Society: Public Values in a Connective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van Dijk, J. A. G. M. (2005). The Deepening Divide: Inequal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ousand Oaks: SAGE.

Vårheim, A., Steinmo, S., & Ide, E. (2008). Do libraries matter? Public libraries and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Documentation, 64(6), 877-892. https://doi.org/10.1108/00220410810912433

Warschauer, M. (2003). Technology and Social Inclusion: Rethinking the Digital Divide. Cambridge, MA: MIT Press.

Yin, R. K. (2018).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 (6th ed.). Los Angeles: SAGE.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Moon, Eun-Mi (2017). An analysis of the design of public libraries in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26(5), 143-151. https://doi.org/10.14774/JKIID.2017.26.5.143

Noh, Younghee & Ro, Ji-Yoon (2020). A study on the role of library in urban regenera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1), 89-113. https://doi.org/10.14699/kbiblia.2020.31.1.089

Park, Seongwoo (2020). Public libraries as a social anchor in urban regeneration paradigm: A case study of constructing public libraries through renovating under-used spac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2), 133-157. https://doi.org/10.16981/kliss.51.2.202006.133